

오늘은 2020년 11월 네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11월 22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1. 오늘도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주일예배를 두 번 나누어 드립니다.

(1)오전 11시 예배

(2)오후 2시 예배

주일학교 자녀가 없는 가정은 가급적 (1)<오전 11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일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은 (2)<오후 2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자 상황에 맞게 예배를 선택하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2. <11월>은 <개인기도>하는 달입니다.

지난 시월에 이어 이번달도 교회에 나와 <개인기도>하는 달입니다.

개인별로 30분, 45분, 혹은 1시간, 기도하는 시간분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혹시 이 시간대가 어려우신 분은, 편한 시간대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예배시간에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최정인 자매(오전 11시 예배), 천우진 형제(오후 2시 예배)가 세례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4. 교회에서 개인기도하는 모임(수요일, 금요일)은 이번주간까지만 진행합니다.

하지만 기도시간은 현재대로 유지합니다.

기도하실 분은 지금처럼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5. 12월 말경 <반나절 성경공부: 본문 로마서>를 계획중입니다.  
오후 1시-오후6시까지 3-4일 동안 로마서 전체를 성경공부 합니다.  
타교회 성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미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내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전도사님들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7. 수능 시험(12월3일)을 준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준희, 송하준, 이준수 형제 및 장우찬, 백주현 형제가 시험을 봅니다.
8. 군복무중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이제우, 김재훈).  
김재훈 형제는 지난 목요일 논산훈련소 훈련과정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우 형제는 다음 주일(29일) 부대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정식 제대는 이후지만, 미사용 휴가, 말년 휴가등으로 인해 일찍 나옵니다).
9. 김재영(김주형-김은재 가정)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성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10.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가 적용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확장 및 리모델링을 했기에,  
지금처럼 주일 예배를 오전11시와 오후2시로 두 번 나누어 드릴 경우  
좌석수 30%(1.5단계), 좌석수 20%(2단계) 어느 경우이건 현재처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11. 교회 계좌로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6 001 04 148 6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신한은행 100-032-008667 언약교회  
농협 355-0070-8191-13 (예금주/언약교회)  
<교육관 헌금> 우리은행 1005-202-531785 (예금주/언약교회)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